

#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

류마티스 관절염이란 우리 몸 속에는 우리 몸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백혈구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이나 세균같은 나쁜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데,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등을 돌려서 우리 자신의 몸을 스스로 공격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많은 환자들이 불치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비록 치료가 어려운 병이라고는 하지만 불치병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병은 10명중에 한 명은 저절로 낫고 나머지 환자들 중에서도 약 60~70%는 약물로 좋은 치료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잘 조절해 나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류마티스 관절염은 치료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

증상을 보면, 손가락, 손목, 팔꿈치, 무릎, 발 같은 관절이 붓거나, 쑤시고, 아프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아프고 뻣뻣해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또 오른쪽과 왼쪽이 같이 아픈 경우가 제일 흔한 증상이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침에 더 아픈데, 그 이유는 자동차를 밤새 세워 두었다가 아침에 시동을 걸면 엔진이 잘 돌지 않고 소리를 많이 내며 뻑뻑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 외에도 눈이 뻑뻑하고, 충혈이 생기며, 입이 잘 벌어지지 않으며, 귀안에 있는 관절이나 조직에 염증이 오면 귀가 울리고 잘 안 들리고, 성대 아래 관절에 염증이 오면 목소리가 변하며 선소리를 낼 수 있다.

또 갈비뼈가 앞 가슴뼈에 와서 닿는 부분이 상당히 아플 수 있으나, 허리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오지 않는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는 전 인구의 1%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환자 10명중에 8명 이상이 여자이다.

이 병이 여자에게 더 많은 것은 아마도 여자들의 체내에 있는 여성 호르몬등이 병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외에도 여성들은 임신, 출산, 생활 방식 등의 차이 때문에 관절염에 더 잘 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남자에서 훨씬 적은데, 그 이유는 아마도 남성 호르몬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전이나 전염이 되는 병은 아니다.



## 1.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은 특별한 검사법이 있기 보다는 주로 의사가 질한 부위를 만져보고 증상을 물어보아서 진단을 내리는 병이다.

다시 말해서 몇 개의 관절이 붓거나 아프고(특히

손가락 관절), 양쪽에 대칭적으로 소위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도 아픈 경우, 또 아침에 관절이 뻣뻣한 정도가 약 1시간 이상 오래 지속되는지 여부 등을 물어서 알 수 있다.

또 류마티스 결절이라고 하는 혹 같은 것이 몸에 돌아 나가거나, X-레이 사진상으로 관절을 파먹었다던가 관절이 망가진 소견을 보이고, 피검사에서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 항체가 검출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X-레이 하나만 가지고 혹은 피검사 하나만 가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거나 어떠한 비싼 검사기에 의존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는 것은 아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 많이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이면 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서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드신 노인 에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할 수가 있다.

주로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갈 관절에 많이 오지만, 반면에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들에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희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이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경우를 말하며, 주로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 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걸리는 관절에 많이 나타난다.

흔히 사람들은 완치될 수 있는지 물어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치라는 것은 수술도 안하고 약 몇 번 먹고 완전히 낫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치료로서 어느 정도 잘 조절해 나간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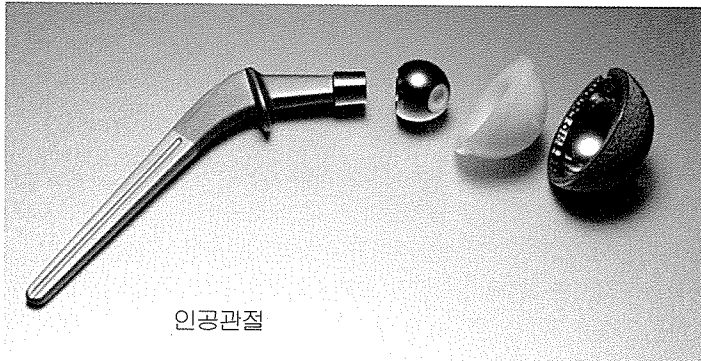
여러 가지 약물을 같이 투여하더라도 류마티스 관절염을 가라앉히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1년, 2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수술을 하거나 관절내시경을 통해서 활액막을 제거해낼 수도 있고 혹은 관절염이 오래돼서 관절이 다 닳아 없어졌을 때(관절이 다 망가졌을 때)에는 관절을 갈아 끼우는 인공 관절 수술을 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약물로 잘 치료할 수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간요법(고양이, 벌침, 지네등)을 많이 시도해 보는데 어떠한 것도 뚜렷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것은 없다.

## 2. 류마티스 관절염과 임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임신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대부분 임신하고 있는 동안은 관절염이 상당히 좋아진다. 그 이유는 태반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호르몬과 체내의 호르몬 변화 때문으로, 관절염이 일시적으로 덜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지내기가 수월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따



인공관절

라서 임신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약으로 꼭 치료하다가 결혼을 해서 임신을 하고자 할 때는 그때까지 쓰던 약을 다 끊고 한 3개월 동안 기다린 다음에, 즉, 약효가 체내에서 다 없어진 후에 임신해야 한다. 이때 약을 끊고 몇 달 건디는 기간 동안이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이때는 임신 중에 쓸 수 있는 호르몬제 같은 것을 조금씩 쓰면서 조절해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또 아파지면 좀 더 여유 있는 자세로 약을 마음놓고 투여해서 치료하는 것이 좋다. [7]

배상철 · 한양대류마티스병원 교수